

수·해운계 고교 승선과 졸업생의 해상직취업 진로분석

김두탁* · 박병수*[†] · 강일권**
(* 경상대학교 · **부경대학교)

An Analysis on Employment to On-board Departments Graduates of Maritime and Fisheries High Schools

Doo-Tak KIM* · Byung-Soo PARK**[†] · Il-Kwon KA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in maritime and fisheries high schools, we investigated the employment situations of the those graduates for the last 8 yea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atio of graduates in maritime and fisheries high schools to total graduates of on-board departments are 69.1% and 30.9% respectively.

The on-board employment rate of maritime high schools and fisheries high schools graduates are 63.2% and 26.7% respectively. Nearly all of the maritime high schools students were employed to merchant ship and fisheries high schools students were employed to merchant ship 77.2% and only 22.8% of them got a job on fisheries ship. The ratio of getting a job in maritime high schools to ocean-going ship was 76.7%, that was the highest ratio and the ratio of fisheries high schools got a job to ocean-going ship was 55.1%. The on-board career of maritime high schools graduates was 1~5 years, which took 86.4% of all careers and that of fisheries high schools was less than 1 year, which took 60.0% of all careers. We should make the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of getting job to fisheries ship in the fisheries high school graduates.

Key words : Employment ratio, On-board career, Maritime high school graduates

I. 서론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세계 5위의 해운강국으로 성장하였고, 수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해운수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인력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

고 있어 해당인력의 중장기 수급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수산 및 해운 인력 확보를 위해 수·해운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통하여 전문 인력이 배출되어 왔으나, 수산업은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 수산물 시장개방, 고유가로 인한 어업비용 증가 등의 여건 변화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해운

[†] Corresponding author : 055-772-9185, bspark@gnu.ac.kr

업계도 육상직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가족 중심의 웰빙 문화의 확산 등으로 청장년층의 승전기피로 인하여 해기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운인력 정책은 해기인력의 양성과 관리에 집중하여 왔으며, 2004년의 해운항만 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시행 이후에는 해사산업 전반의 인력양성으로 정책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운산업의 전문인력은 양적 수급 부족, 직무요구에 대한 개인 능력 미흡,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수준과 공급되는 인력이 갖춘 기술수준의 불일치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교육프로그램과 현장 수요 간의 상호 연계성 부족 및 불일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산업성장과 발전에 따른 적절한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은·신도**한 수산부분에서 수산계 고교 졸업생의 전문인력 공급은 매년 부족하여 2008년의 경우 수산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77%, 취업률은 11%이며 이 중 수산 부분의 취업률은 7%에 그치고 있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최성애, 2009), 이는 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낮은 임금, 해상환경의 위험성, 강한 노동 강도,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수산업 생산규모에서 일정한 수준의 수산인력의 수요가 지속되지만, 수산인력의 이탈 및 공급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족한 수산 및 해운 인력의 확충을 위해서 수산 및 해운 전문인력의 공급 및 수급현황, 졸업 후 진로 및 수·해운분야 전문양성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산과 해운분야 전반에 대한 각각의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수·해운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수·해운계 고교 졸업생들의 해상직 취업 진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지금까지의 수·해운계 고교 졸업생들의 해상직 취업 진로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의 의식 및 진로에 관한 연구(김미향, 2002; 김창원, 2003; 박순의 2006),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남기, 2003),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승선실습제도에 대한 고찰(김동근, 2009), 해양 및 수산계 교육기관의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 개발(김경근, 2006), 수산전문인력 양성방안(김삼곤 외, 2006), 해운산업 전문인력 수급전망과 정책방안(고병욱 외, 2010)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수산계 고교 및 대학만을 위주로 분석하였거나 해운산업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수·해운 분야를 포괄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수·해운계 고교 승선과 졸업생들의 해기사 자격 취득 현황, 해기사 직책별 및 면허급수별 분포현황, 수·해운계 고교 졸업생 현황, 해상직과 업종별 취업 현황 및 승선경력 현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수·해운계 고교의 전문인력 양성의 방향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해기사 취업 현황

1. 해기면허현황

2004년 ~ 2011년의 해기면허현황은 <Table 1>과 같다.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와 소형선박조종사로 구성되어있는데, 매년 지정교육기관에서 배출하여 신규로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자가 퇴출자보다는 많아 소형선박조종사를 제외한 해기사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레저의 활성화, 선박탑재 작업정 등에도 면허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소형선박조종사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다.

<Table 1> Annual variation of effective ship officers' certificate

year	deck officer			eng. part	navigator			operator			small boat	total	
	general	merchant	fisheries		deck	eng.	sub	GOC	ROC	sub			
04	10,883	13,078	4,514	28,475	20,629	26	39	65	3,156	10,714	13,870	23,847	86,886
05	11,383	13,499	4,478	29,360	21,104	27	42	69	3,274	11,074	14,348	23,578	88,459
06	12,922	14,013	4,445	31,380	22,040	23	35	58	3,244	11,280	14,524	27,009	95,011
07	13,590	14,370	4,399	32,359	22,473	15	26	41	3,005	11,602	14,607	30,400	99,880
08	14,408	14,552	4,272	33,232	22,816	16	20	36	3,088	11,735	14,823	39,122	110,029
09	14,149	15,741	3,998	33,888	3,307	17	18	35	3,383	12,868	16,251	42,690	116,171
10	14,013	16,218	3,965	34,196	23,539	14	17	31	3,568	13,434	17,002	45,283	120,051
11	13,647	16,679	3,962	34,288	23,911	13	16	29	3,633	13,851	17,484	48,377	124,089

2. 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별 변화추이는 <Table 2>와 같다. 상선해기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어선해기사는 정체상태이다. 그리고 해외취업 해기사는 감소하였

다. 2011년의 경우, 상선이 와내항선을 합쳐 12,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선은 원양, 연근해의 합계가 5,851명이었으며, 해외취업선은 상선, 어선을 합쳐 2,957명이었다.

<Table 2> Annual variation of effective ship officers' certificate by ship types

year	national flag						foreign flag			total
	merchant			fisheries			merch ant	fisheri es	sub	
	ocean	in shore	sub	ocean fish	coast	sub				
04	3,992	5,173	9,165	1,669	3,938	5,607	3,370	187	3,557	18,329
05	4,538	5,373	9,911	1,578	4,506	6,084	3,100	156	3,256	19,251
06	4,583	5,315	9,898	1,522	4,475	5,997	3,124	143	3,267	19,162
07	5,128	5,402	10,530	1,443	4,359	5,802	3,112	136	3,248	19,580
08	5,656	5,495	11,151	1,341	4,461	5,802	3,227	113	3,340	20,293
09	5,848	5,517	11,365	1,379	4,506	5,885	3,251	135	3,386	20,636
10	6,158	5,660	11,818	1,363	4,682	6,045	3,002	127	3,129	20,992
11	6,233	5,973	12,206	1,462	4,389	5,851	2,773	184	2,957	21,014

3. 직책별 분포현황

직책별 변화추이는 <Table 3>과 같다. 직책별 연변화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상위 직책인 선장과 기관장의 인원수가 가장 많았고, 직책이 낮아질수록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11년의 경우, 항해사가 10,947명, 기관사가 9,770명으로 항해사가 1200명 정도 많았고, 통신장은 297명으로 적었다. 통신장은 위성통신 장비의 보급과 더불어 승선이 불필요하여 관공선 및 일부 어선 이외에는 승선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Table 3> Annual variation of ship officers' duty

year	deck officer					eng. officer				operator	total	
	capt.	chief	2nd	3rd	sub	chief	1st	2nd	3rd	sub		
04	5,322	2,258	1,212	703	9,495	5,103	1,938	916	526	8,483	351	18,329
05	5,565	2,485	1,299	705	10,054	5,259	2,149	914	548	8,870	327	19,251
06	5,607	2,463	1,230	722	10,022	5,244	2,127	895	551	8,817	323	19,162
07	5,598	2,647	1,286	723	10,254	5,311	2,208	960	526	9,005	321	19,580
08	5,734	2,795	1,298	723	10,550	5,591	2,362	943	578	9,474	269	20,293
09	5,792	2,878	1,312	789	10,771	5,519	2,458	988	626	9,591	274	20,636
10	5,785	2,991	1,365	781	10,922	5,674	2,518	1,000	627	9,819	251	20,992
11	5,939	2,911	1,343	754	10,947	5,739	2,369	1,005	630	9,770	297	21,014

data : The current state of graduates from maritime and fisheries school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4. 면허 직종 및 등급별 분포현황

면허 직종 및 등급별 변화추이는 <Table 4>와 같았다. 항해사와 기관사 모두 완만한 증가세이

며, 항해사와 기관사 모두 3급의 인원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Table 4> Annual variation of ship officers' certificate duty and class

year	deck officer						eng. officer						total
	1	2	3	4	5	sub	1	2	3	4	5	sub	
04	1,509	1,415	2,270	1,142	805	7,141	1,345	1,214	1,840	1,163	753	6,315	13,456
05	1,557	1,372	2,322	1,251	1,033	7,535	1,374	1,176	1,908	1,219	633	6,310	13,845
06	1,643	1,367	2,279	1,196	903	7,388	1,458	1,195	1,824	1,174	691	6,342	13,730
07	1,618	1,399	2,396	1,414	969	7,796	1,378	1,243	1,915	1,395	790	6,721	14,517
08	1,721	1,494	2,303	1,554	1,102	8,174	1,450	1,362	1,942	1,511	928	7,193	15,367
09	1,761	1,535	2,338	1,635	1,086	8,355	1,491	1,356	1,996	1,549	982	7,374	15,729
10	1,832	1,617	2,367	1,552	1,033	8,401	1,573	1,385	2,105	1,460	913	7,436	15,837
11	1,812	1,656	2,464	1,638	1,244	8,814	1,565	1,417	2,146	1,526	1,055	7,709	16,523

data : The current state of graduates from maritime and fisheries school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Ⅲ. 승선과 졸업생 현황

1. 고교별 졸업생 현황

<Table 5>는 고교별 승선과 졸업생 현황이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의 승선과 졸업생 수는 총 6,682명이고, 해운계의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의 졸업생은 각각 1,868명과

1,475명, 합계 3,343명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하였다. 수산계의 경우, 인천해양고 957명, 포항해양고 865명 등 합계 3,341명으로 전체의 50.0%를 점하였다. 연도별 졸업생 수를 보면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789명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그 후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Table 5> Annual variation of high school graduates

year	maritime			fisheries									total
	B.S	I.C	sub	G,N	G.R.P	W.D	U.R	I.C.H	S,S	C.N	P.H	sub	
04	221	165	386	17	23	50	4	132	17	80	60	383	769
05	220	197	417	18	30	53	3	110	18	54	114	400	817
06	256	214	470	21	24	37	7	126	15	35	86	351	821
07	267	214	481	35	25	34	7	115	18	38	120	392	873
08	219	170	389	29	55	55	10	123	24	52	129	477	866
09	226	175	401	38	22	36	8	117	19	46	102	388	789
10	234	170	404	39	57	43	11	114	23	54	122	463	865
11	225	170	395	44	55	43	10	120	28	55	132	487	882
total	1,868	1,475	3,343	241	291	351	60	957	162	414	865	3,341	6,682
rate(%)	27.9	22.1	50.0	3.6	4.4	5.3	0.9	14.3	2.4	6.2	12.9	50.0	100

data : The current state of graduates from maritime and fisheries school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BS : 부산해사고, I.C : 인천해사고, G.N : 경남해양고, G.R.P : 구룡포중고, W.D : 완도수고, U.R : 울릉중고, I.C.H : 인천해양고, S,S : 성산고, C.N : 충남해양고, P.H : 포항해양고

2. 과별 졸업생 현황

가. 항해관련과 졸업생

<Table 6>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고교별 항해관련승선과 졸업생수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12명에서 463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08년 451명, 2009년 415명, 2010년 460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에는 46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항해관련과 졸업생은 해운계인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의 2개 학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율로는 부산해사고가 27.1%, 인천해사고 21.8%이며 수산계 8개 학교가 접하는 비율은 51.1%이었다.

<Table 6> Annual variation of high school graduates by deck department

연도	maritime			fisheries									total
	B.S	I.C	sub	G,N	G.R.P	W.D	U.R	I.C.H	S,S	C.N	P.H	sub	
04	122	95	217	5	11	24	4	68	17	53	13	195	412
05	107	101	208	8	15	26	3	67	18	22	52	211	419
06	122	114	236	7	13	26	7	68	15	15	38	189	425
07	135	114	249	15	12	20	7	64	18	16	62	214	463
08	116	82	198	15	29	26	10	64	24	24	61	253	451
09	113	90	203	16	10	25	8	59	19	22	53	212	415
10	115	88	203	21	29	24	11	60	23	28	61	257	460
11	120	84	204	23	23	22	10	62	28	27	67	262	466
total	950	768	1,718	110	142	193	60	512	162	207	407	1,793	3,511
rate(%)	27.1	21.8	48.9	3.1	4.1	5.5	1.7	14.6	4.6	5.9	11.6	51.1	100

data : The current state of graduates from maritime and fisheries school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나. 기관관련과 졸업생
 <Table 7>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각 고교
 별 기관관련과 졸업생수이다.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357명에서 41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다가 2009년 374명으로 감소하고, 2010년 407

명 그리고 2011년에는 416명으로 증가하였다. 기
 관관련과도 해운계는 부산해사고의 졸업생이
 28.9%, 인천해사고 졸업생이 22.3%로 합하여
 51.2%의 비율을 이루고 있으며, 수산계의 졸업
 생은 전부 합하여 48.8%이다.

<Table 7> Annual variation of high school graduates by engine department

year	maritime					fisheries					total
	B.S	I.C	sub	G.N	GR.P	W.D	I.C.H	C.N	P.H	total	
04	99	70	169	12	12	26	64	27	47	188	357
05	113	96	209	10	15	27	43	32	62	189	398
06	134	100	234	14	11	11	58	20	48	162	396
07	132	100	232	20	13	14	51	22	58	178	410
08	103	88	191	14	26	29	59	28	68	224	415
09	113	85	198	22	12	11	58	24	49	176	374
10	119	82	201	18	28	19	54	26	61	206	407
11	105	86	191	21	32	21	58	28	65	225	416
total	918	707	1,625	131	149	158	445	207	458	1,548	3,173
rate(%)	28.9	22.3	51.2	4.1	4.7	5.0	14.0	6.5	14.5	48.8	100.0

data : The current state of graduates from maritime and fisheries school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V. 해상직 취업 현황

1. 해운계고교 해상직 진출추이

<Table 8>은 해운계 고교 졸업생의 2004년부
 터 2011년까지의 승선 및 이직현황이다.

예비인력은 승선대기 중인 인원으로서 승선인
 원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졸업인원 중에서 승선
 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해운계의 부산해사고가
 46.4%, 인천해사고가 43.6%의 비율을 보이고, 해
 운계 전체는 45.1%를 나타내었다.

<Table 8> On-board employment of maritime high school(2004 ~ 2011)

	B,S	I.C	total
on-board(A)	483	349	832
waiting(B)	383	294	677
employment(A+B)	866	643	1,509
unemployed graduates(C)	1,002	832	1,834
on-board rate(%) (A+B)/C	46.4	43.6	45.1

*예비인력은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구직등록 후 유효기간(9개월)내에 있는 자
 를 의미하며, 승선대기자를 말한다.

2. 수산계고교 해상직 진출추이

2004년 ~ 2011년까지의 졸업생 중에서 해상

직 취업현황은 <Table 9>와 같다. 수산계의 경
 우 완도수고 16.2%, 인천해양고 12.6%, 경남해양

고 10.4%였고, 나머지고교에서는 4.5~8.5%의 비율을 보였다. 해운계 고교의 해상취업률 45.1%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수산계 전체의 평균 해상직 취업률은 9.2%로

<Table 9> On-board employment of fisheries high school(2004 ~ 2011)

	G.N	GRP	W.D	U.R	I.C.H	S.S	C.N	P.H	total
on-board(A)	19	8	30	0	44	0	7	27	135
waiting(B)	6	5	27	4	77	11	28	14	172
employment(A+B)	25	13	57	4	121	11	35	41	307
unemployed	216	278	294	56	836	151	379	824	3,034
graduates(C)	241	291	351	60	957	162	414	865	3,341
on-board rate(%) (A+B)/C	10.4	4.5	16.2	6.7	12.6	6.8	8.5	4.7	9.2

data : The current state of graduates from maritime and fisheries school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V. 업종별 취업 현황

해운계고교의 연도별, 전공별, 업종별 승선현황은 <Table 10>과 같다.

1. 해운계고교 업종별 취업 현황

<Table 10> On-board employment of maritime high school by duty

year	major	B,S						I.C					total
		ocean	in-shore	foreign mercha nt	ocean fish	coastal	sub	ocean	in-shore	foreign mercha nt	ocean fish	sub	
04	deck	11	2	4		1	18	6	5		11	29	43
	eng.	3					3	3	5	2	1	14	
05	deck	17	3	1			21	10	3	4	17	38	77
	eng.	12	4	2			18	12	7	2	21	39	
06	deck	17	5	4			26	14	4	1	19	45	86
	eng.	12	7	3	1		23	9	8	1	18	41	
07	deck	18	6	5			29	12	4	2	18	47	78
	eng.	15	3	2			20	10	1		11	31	
08	deck	26	6	5			37	19	6	3	28	65	109
	eng.	16	6		1		23	14	7		21	44	
09	deck	42	9	6	2		59	30	8		38	97	196
	eng.	38	7	4	2		51	19	9		28	79	
10	deck	29	7	6	1		43	21	14	1	36	79	134
	eng.	28	7	3	1		39	9	6	1	16	55	
11	deck	23	10	3			36	23	8	1	32	68	125
	eng.	23	10		1		34	14	8	1	23	57	
total		330	92	48	9	1	480	225	103	19	1	348	828
rate(%)		68.7	19.2	10.0	1.9	0.2	100	64.6	29.6	5.5	0.3	100	

data : The current state of graduates from maritime and fisheries school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업종은 외항선, 내항선, 해외취업상선, 원양어선으로 분류하였다.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 양 고교의 외항선 취업률이 월등히 높아 각각 68.7%, 64.6%를 보였고, 내항선은 19.2%, 29.6%를 보였고, 해외취업상선은 각각 10.0%, 5.5%였으며, 원양어선은 1.9%, 0.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수산계대학의 연도별, 전공별, 업종별 취업현황은 <Table 11>과 같다. 승선업종을 외항선, 내항선, 원양어선, 연근해어선, 해외취업상선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2004년에서 2011년까지 총 135명이 해상직에 취업하였고, 연도별 취업인원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항해, 기관 합하여 10명내외이었으며, 2009년은 22명, 2010년 25명으로 증가하고 2011년에는 44명으로 증가하였다.

2. 수산계고교 업종별 취업현황

<Table 11> On-board employment of fisheries high school by duty

		04	05	06	07	08	09	10	11	total											
		deck	eng.	deck	eng.	deck	eng.	deck	eng.	deck	eng.	total									
G.N	ocean	0	1				1					2									
	in-shore					1						1									
	ocean fish					1	1	1	2	3	6	14									
	coastal fish						1					1									
	foreign merchant								1			1									
	total	0	0	0	1	0	0	0	0	2	0	3	1	1	2	3	6	0	0	19	
G.R.P	ocean			1																1	
	in-shore																				0
	ocean fish			1				1					1	1							4
	coastal fish	1	1	1																	3
	foreign merchant																				0
	total	1	1	2	1	0	0	0	0	0	0	1	0	0	0	1	1	0	0		8
W.D	ocean				1					1											2
	in-shore																				0
	ocean fish				1	1				1	2	4	9	7							25
	coastal fish	1		1						1											3
	foreign merchant																				0
	total	1	0	1	0	2	0	1	0	0	2	0	1	2	4	9	7	0	0		30
I.C.H	ocean		1	2	3	3									2	1					12
	in-shore	1																			1
	ocean fish	2			1	2		1	5	5	5	5	4	2	1						28
	coastal fish							2							1						3
	foreign merchant																				0
	total	3	1	0	2	4	3	2	0	3	0	5	5	5	4	5	2	0	0		44
C.N	ocean	2																			2
	in-shore																				0
	ocean fish	1						1			1		2								5
	coastal fish																				0
	foreign merchant																				0

수·해운계 고교 승선과 졸업생의 해상직취업 진로분석

	total	3	0	0	0	0	0	0	0	0	1	0	0	0	1	0	2	0	0	7
	ocean						1				1									2
	in-shore		2							1										3
P.H	ocean fish	1					1	1			3	2	2	3	5	3				21
	coastal fish																			0
	foreign merchant												1							1
	total	1	0	2	0	0	1	1	1	1	0	4	2	3	3	5	3	0	0	27
	ocean	2	1		4	4	4				1	2				2	1	10	11	21
	in-shore	1		2						2									5	5
	ocean fish	4		1		2		4	1	2	1	10	8	10	14	20	20	53	44	97
total	coastal fish	2	1	2						2	1	1				1		8	2	10
	foreign merchant												1	1				1	1	2
	total	9	2	5	4	6	4	4	1	6	3	13	9	11	14	23	21	77	58	135
		11		9		10		5		9		22		25		44				

3. 고교별 업종별 취업현황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고교별 업종별 취업현황은 <Table 12>와 같다. 해운계는 대부분의 학생이 상선으로 진출하여 부산해사고는 97.9%, 인천해사고는 99.7%가 상선에 취업하였다.

수산계고교의 8년간 해상직취업은 총 135명이며, 인천해양고 44명, 완도수고 30명, 포항해양고 27명의 순으로 취업하였다. 그 중 97명이 원양어선에 취업하여 전체의 71.8%를 차지하였고, 외항선은 21명으로 15.6%, 연근해어선 10명 7.4%, 내항선 5명 3.7%였다.

<Table 12> On-board employment of high school by ship type(2004 ~ 2011)

	maritime					fisheries					total
	BS	I.C	total/rate (%)	GN	GRP	WD	I.CH	CN	PH	total/rate (%)	
ocean	330	225	555/67.0	2	1	2	12	2	2	21/15.6	576
in-shore	92	103	195/23.6	1	0	0	1	0	3	5/3.7	200
ocean fish	9	1	10/1.2	14	4	25	28	5	21	97/71.8	107
coastal fish	1	0	1/0.1	1	3	3	3	0	0	10/7.4	11
foreign merchant	48	19	67/8.1	1	0	0	0	0	1	2/1.5	69
total	480	348	828	19	8	30	44	7	27	135	963
merchant(fisheries)/on-board	97.9	99.7	98.7	78.9	87.5	93.3	70.5	71.4	77.8	79.3	

data : The current state of graduates from maritime and fisheries school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VI. 졸업생 승선경력

<Table 13>은 각 고교별 승선경력의 분포이

다. 해운계의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이 39.2%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2년 미만이 31.2%를 보인 반면, 수산계는 1년 미만이 전체의 60.0%

를 차지하였고, 승선경력이 길수록 그 비율은 감소하였다. 승선경력이 1년 미만인 것은 고교 재학 중의 실습경력만 채우고 해상직취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운계와 수산계 공통으

로 대부분 승선기간이 3~5년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병역특례기간인 3년을 승선하면 대부분 하선하기 때문이다.

<Table 13> The career of high school graduates

	BS	I.C	total/rate (%)	G.N	GRP	W.D	UR	I.C.H	SS	C.N	P.H	total/rate (%)	total
no career	260	215	475/14.2	3	32	26	1	765	7	208	88	1,130/33.8	1,605
less 1year	448	319	767/23.0	220	248	65	56	156	155	154	758	1,812/54.2	2,579
1 ~2	598	436	1,034/30.9	14	4	239	1	26		49	13	346/10.4	1,380
2 ~3	204	166	370/11.1	2	2	14	0	8		3	2	31/0.9	401
3 ~5	317	306	623/18.6	2	3	5	2	2			3	17/0.5	640
5~ more 10	41	33	74/2.2		2	2					1	5/0.2	79
total	1,868	1,475	3,343/100	241	291	351	60	957	162	414	865	3,341/100	6,684

data : The current state of graduates from maritime and fisheries school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VII. 고찰 및 논의

수해운계 고교의 해상직취업률은 높지않았고, 특히 수산계 고교의 해상직취업률은 9.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른 원인도 있지만, 수해운계를 포함한 실업계고교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해상직취업률 저조의 근본원인으로 판단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졸업 후 취업보다는 진학하는 학생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Table 14>에 일반계와 실업계고교의 대학진학률을 나타내었다. 실업계가 일반계에 비해 다소 낮은 진학률을 나타내지만, 전체적으로 80%를 상회하는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Table 14> Entrance rate of high school(%)

year	80	85	90	95	00	05	10	11
일반계	39.2	53.8	47.2	72.8	83.9	88.3	81.5	75.2
실업계	11.4	13.3	8.3	19.2	42.0	67.6	71.1	63.7
고교전체	27.2	36.4	33.2	51.4	68.0	82.1	79.0	72.5

<Table 15> Entrance and employ rate of high school(2010)

	maritime			fisheries				mean
	I.C	B.S	mean	I.C.H	P.H	W.D	C.N	
entrance rate	19.3	20.4	19.8	42.0	44.0	60.0	56.3	50.6
on-board employ	43.6	46.4	45.1	12.6	4.7	16.2	8.5	9.2
pure on-board employ	90.6	98.4	94.5	46.1	24.1	91.9	33.3	52.0

* 수산계고교의 경우 졸업생수가 적은 고교는 제외하였고, 순해상직취업률은 졸업생 중에서 대학진학생을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였음.

80년대와 90년대 초에 일반계는 50%내외, 실업계는 10%대에 불과하던 대학진학률이 2000년대 초에는 일반계 80%이상 실업계는 40%를 초과하였다. 2005년부터 실업계의 진학률도 급격히 증가하여 70%에 가까운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진학률을 감안한 수해운계 고교의 취업률을 <Table 15>에 나타내었다. 2010년도 해운계 고교의 평균진학률은 19.8%이었고, 수산계 고교의 평균진학률은 50.6%이었다. 졸업생 중에서 대학진학자를 제외한 순 해상직취업률은 해운계는 94.5%, 수산계는 52.0%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수의 증가, 1~2명의 소자녀화, 대졸과 고졸간의 임금격차 및 직업으로서 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의 이유로 수해운계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취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직업으로서 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함께 내실 있는 진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수산업계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인 불안정한 임금체계, 작업환경의 위험성과 높은 노동 강도 등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방안으로는, 수·해운계 고등학생의 채용을 장려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강화 및 의무화, 고교 졸업생 채용 수·해양 산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병역문제 해결, 관련 업체 실습의무화 및 비용 지원, 근무환경 개선, 예비 수산 및 해운업 경영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해운계 고교 승선과 졸업생들의 해상직 취업 후, 다양한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인재가 육상의 수·해운산업으로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인원 확충, 산업기능요원의 수·해운산업 후계자 선정, 직업경력개발 프로그램 마련, 중소기업을 위한 해운전문인력 양성 강화, 시장기능 보안을 통한 해운전문인력 양성 확대, 양성 및 교육사업의 체계적 관리 강화, 벤처 수·해운산업 지원 프로그램, 귀어 정착 프로그램 적극

지원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하여 수해운계 고교 졸업생의 해상직진출 저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수산계 졸업생의 어선진출은 미미하고, 특히 연근해어선의 승선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연근해어선의 인력난으로 각종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근해어선의 시설, 작업환경, 그리고 처우 등을 개선하여 수산계 고교 졸업생의 연근해어선 승선을 유도한다면, 연근해수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VI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수·해운계고교의 승선과 졸업생의 해상직취업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취업률향상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선과 중 해운계고교 졸업생과 수산계고교 졸업생의 비율은 각각 50.0%를 차지하였다.

둘째, 최근 8년간의 졸업생의 해상직취업률이 해운계 45.1%, 수산계 9.2%로 해운계의 취업률이 수산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해운계의 경우 대부분의 졸업생이 상선에 취업하였으며, 수산계의 어선취업률은 78.2%이었고, 상선취업은 21.8%로 나타났다.

셋째, 해상직취업 중 해운계고교의 경우, 외항선이 67.0%로 가장 높았고, 내항선 23.6%, 해외취업상선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계고교의 경우, 원양어선이 71.8%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는 외항선 15.6%, 연근해어선 7.4%, 내항선 3.7%, 해취상선 1.5%의 순을 보였다.

넷째, 승선경력의 분포를 보면 해운계고교의 경우 1~2년이 3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 23.0%로 승선경력 1~5년이 전체의 62.8%를 차지하였다. 반면 수산계고교는 1년미만

이 54.2%로 가장 많았고, 승선경력 1~5년이 전체의 12.0%에 불과하였다.

다섯째, 해운계에 비해 수산계고교 졸업생의 해상직 진출이 저조하였고, 특히 어선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취업률 저조의 주원인은 수입의 불안정, 노동의 강도, 어로작업의 위험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수산계의 고교인력양성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여섯째, 해상직 취업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진학률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고교의 높은 대학진학률을 감안하면, 수산계의 해상직취업률은 그다지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 수·해운계의 대학진학률은 약 35%에 불과하여 실업계 고교 전체의 진학률 70%의 절반수준이었고, 진학자를 제외한 순 해상직취업률은 해운계는 94.5%, 수산계는 52.0%로 나타났다.

2. 제언

부족한 수산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산업계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인 작업환경의 위험성과 높은 노동 강도, 열악한 처우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해운계 고등학생의 채용을 장려 및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 고교 졸업생 채용 수·해양 산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병역문제 해결, 예비 수산 및 해운업 경영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수산계졸업생이 연근해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면, 작금 문제화되고 있는 연근해어선 해양사고의 저감대책의 일환이 되리라 판단된다.

Reference

- Choi, Sung-ae(2009). The Policy of Fisheries high school education, KMI
- Go, Byung-wook & Kim, U-ho(2010). Prospects on the demand and supply of the professionals in the shipping indust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Korea Maritime Institute.
- Kim, Chang-Won(2003). A Study on the fisheries high school students' actual state of directions in life, Uiduk University.
- Kim, Gyung-geun(2006). Development of System for A Middle and Long Period Educational Plan of Maritime and Fisheries Specialty Manpower.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Kim, Mi-Hyang(2006). A Study of Fisheries High School Students' Conscious and Actual Conditions of Path in Life, Uiduk University.
- KOSWEC(2007). The current state of graduates from maritime and fisheries school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KOSWEC(2012). The current state of graduates from maritime and fisheries school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KRIVET(2011).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dicators.
- Lee, Nam-Gi(2003). A Study on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of fisheries high school students. Uiduk university.
- Park, Soon-Yi (2006). A study on the fisheries high school students' career consciousness , Inha university.
- Statistics Korea((201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 논문접수일 : 2013년 02월 20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3월 30일
2차 - 2013년 04월 09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12일